

광주시,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대 박차

3월 복구 장동 충전소 개소 상반기 중 2개소 추가 구축 매년 2개소 이상 확충키로

광주시가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상반기 내에 장동 수소차 충전소 등 2개소(47기)를 추가 구축하고, 내년에 3월 수소차 충전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매년 수소차 충전소를 2개소 이상 확충한다. 장동 수소차 충전소는 이달 중 시운전과 시범

운행을 거쳐 3월부터 시내버스 전용 수소충전소로 운영한다. 우선 수소버스 10대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말까지 버스 20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또 시내버스 수소충전소로 운영했던 벽진 충전소를 일반 수소(승용)차 충전소로 전환하고, 1기를 추가 증설해 개방하기로 했다. 지역 최초로 민간사업자(하이넷)가 짓고 있는 매일 수소충전소(서구 매일동 326-10번지 일원)도 올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국·공유 유류 부지 제고와 함께 기존 주유소·충전소 부지에 복합충전소 구축방식의 민간 수소충전소 유치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2014년 광산구에 자치단체 최초로 진곡 수소충전소를 조성한 이후 2018년 동곡 수소충전소, 2020년 남구 입암 수소충전소, 서구 벽진 수소충전소를 각각 구축했으며, 지난해엔 북구에 월출 수소충전소를 완공하는 등 수소충전소 5곳을 운영 중이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는 기후변화 대응과 광주시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필수 에너지"라면서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차 보급확산을 위해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공무원교육원 작은예식장 이용하세요”

2월 재개장...저소득층 등 무료

광주시공무원교육원은 “코로나19로 중단한 주말예식장을 다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 공무원교육원은 작은 예식을 선호하는 시민과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주말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료는 3만원(냉·난방비 별도)이며 저소득층·다문화가정 전액 무료다. 지난해에는 이용객에게 쾌적한 예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 3200만원을 투입해 천장·벽체 도장공사, 단상 장식벽 설치, 신부대기실 개선, 카페트 교체, 실내조명 교체 등을 통해 시설을 대폭 개선했다. 주말예식장은 객석(80석), 신부대기실, 폐백실, 피로연장(250석) 규모이며, 대규모 주차장(280대)도 갖추고 있다. 주말예식장 사용 문의는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062-613-7022)로 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 100억 투입 80개 기업 지원

광주시는 “지역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광주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은 지역기업이 스마트 제조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자동화 설비 구축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사업비 100억원(국비 80억, 시비 20억원)을 투입해 관내 80여 개 기업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적용된 고도화 지원금을 최대 4억 6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역 제조현장에 적합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대중소 상생형,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은 지원 유형에 따라 일반형(기초, 고도화1, 고도화2)과 대중소상생형(기초, 고도화1, 고도화2), 업종별 특화형(기초, 고도화1)으로 구분돼 도입단계에 따라 사업비가 차등 지원된다.

일반형 중 기초와 고도화1은 광주테크노파크, 고도화2는 한국인공지능제조이니셔티브에서 운영하고, 대중소 상생형과 업종별 특화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후 운영기관을 선정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분사 또는 주사업장이 광주에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며, 신청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다.

참여기업은 서류상 요건을 검토한 후 기술성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안심하고 오세요” 광주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직원들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집중 방역 소독을 완료하고 4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입주법인들은 매일 자체 소독 및 유통종사자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관리 철저, 환기, 손소독제 비치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 공공심야약국 2곳서 5곳으로 확대

동구·남구·광산구에도 운영

광주시는 “올해부터 365일 연중무휴로 심야시간대 전문약사에게 복약 지도를 받고 의약품 구입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서구와 북구 등 2곳에서 운영하던 공공심야약국을 동구, 남구, 광산구에 1곳씩 추가했다. 공공심야약국은 ▲대동약국(동구/223-7675) ▲금호스타약국(서구/383-8255) ▲나래약국(남구/675-0203) ▲백림약국(북구/263-0994) ▲라온약국(광산구/946-0325) 등이다. 광주시 약사회는 약국의 접근성과 의약품 구

비 내역, 지속가능성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해 공공심야약국을 추가 선정했다.

공공심야약국은 2020년부터 365일 연중무휴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의약품 판매 8713건, 조제 208건, 전화상담 55건을 이용했다. 공공심야약국 방문객 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4.7%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고 99.6%의 응답자는 재방문의사를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심야시간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중소기업 외상거래 손실 보험료 지원

보험료 50%...기업당 300만원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외상거래로 인한 자금난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를 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연쇄 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정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보험제도다.

광주시는 신용보증기금에 3억원을 출연해 매출채권 보험료의 50%를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우대지원으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를 10% 할인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등 매출채권보험 보험계약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된다. 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광주신용보증센터(062-607-9261)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 농업기술센터, ‘유기농업기능사 취득 교육’

14~18일 교육생 모집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14일부터 18일까지 유기농업기능사 취득과정 교육에 참여할 시민 30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유기농업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취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유기농업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전문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기농업기능사는 화학합성물질을 사용하지 않

고 유기물과 미생물 등 자연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업 관련 생산부터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기술 지도까지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교육은 3월 4일부터 5월 27일까지 총 10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시험출제기준에 따라 작물재배, 토양관리, 유기농업일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광주시내 거주하는 시민으로 희망자는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마당-교육안내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해 이메일(fndfndn32@korea.kr)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고객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광주시 11일까지...법인 등 대상

광주시는 “고객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공고일 현재 광주시내 소재한 교육기관 또는 비영리단체·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기기 등을 보유하고 고객센터 산업육성 등 관련 전문인력을 최소 3명 이상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지역 내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객센터 신·증설 유지활동 ▲고객센터 운영 효율화 및 네트워킹 지원 ▲고객센터 입

지여건 등 홍보 ▲상담사 인력양성 및 순회 설명회 ▲상담사 감정노동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7일부터 11일까지 시청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송권춘 시 일자리정책관은 “해마다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객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역량있는 기관·단체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